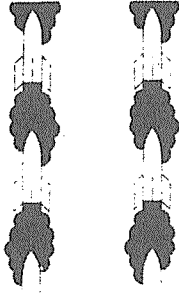


## 電子工業日誌



〈'94. 10. 1~10. 31〉

10. 1 : 상공자원부, 「'95년 중소기업 육성시책」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갖추도록하고 재정 및 금융자금지원의 폭을 크게 늘리기로 하는 한편 '95년 중소기업 재정지원 자금규모를 총 6조원 지원키로 했다고.
10. 2 : 체신부, '95년도 공공 DB 개발 보급을 확정 내년중 총 270억 원을 들여 130여개의 공공DB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.
10. 5 : 상공자원부, 미·일간의 포괄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우선협상 대상국 관행을 지정치 않을 것이 확실시 된다고.
10. 6 : 상공자원부, 차세대 대화형 CATV(I-CATV) 개발에 필요한 비디오 서버 등 7개 핵심기술을 중점개발하고 가입자 단말기용 광대역 튜너 등 3개 핵심부품을 국산화키로 했다고.
10. 7 : 전자부품(연), PCB 패턴을 고속으로 정밀검사 할수 있는 비전검사시스템을 국산화 했다고.
10. 10 : 상공자원부, 국내 기업들은 오는 2005년까지 CFC나 할론 가스 등 규제 물질을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.
10. 11 : 파기처, '93년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건수는 707건이며 이에 대한 로열티는 9억 4,6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.
10. 15 : 상공자원부, 가정용 온열치료기 등 9개 품목이 수입시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시트·전기조끼 등 41개 품목은 1종인 형식승인대상에서 2종인 신고대상품목으로 전환된다. 또 공업용 요소비료에 대한 수입추천제가 폐지돼 공업용비료의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고 귀금속·주화·금·우

- 표·수입인지 등을 자가화폐수집용이나 외국전시용 및 화폐수집기에 대한 판매용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허용금액이 종전의 미화 1천달러 상당액(판매업자 3천달러상당액) 이하에서 미화 10만달러 이하로 완화된다.
10. 18 : 상공자원부, 한·영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산업 및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한·영 산업협력위원회 설립했다고.
10. 19 : KIST, 가정용 및 산업용 냉동기의 주요 냉매로 쓰이나 오존층을 파괴 향후 사용규제가 예상되는 수소화 염화 불화탄소(HCFC-22)를 대체할 수소화 불화탄소물질 HFC-32가 개발됐다고.
10. 20 : 파기처, 「연구성과와 확산사업 기본계획」에 따라 산업계의 기술에로 타개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기술상담 및 각종 지원사업을 본격화 할 기술개발 상담센터를 설립했다고.
10. 21 : 체신부, 최근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상품화 전략에 따라 수출유망 품목으로 선정한 교환기·팩시밀리 등 10개 품목의 핵심기술개발과 수출지원 등에 올해 71억

원을 투입키로 했다고.

10. 22 : 파기처,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 대상기술 58개를 선정하고 전자·전기분야에서는 오리온전기의 HDTV, 와이드비전 CRT용 MP-DQF 전자총시스템 등 16건이었다고.
10. 22 : 공진청, 국가간 시험결과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움직임이 본격화 됨에 따라 국내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만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대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.
10. 24 : 상공자원부, 산업피해구제제도 발전 세미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 급변하고 있는 수출입 환경에 대응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피해구제제도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됐다고.
10. 25 : 충남대, PC상에서 다자간 탁상회의가 가능한 PC용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시스템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고.
10. 28 : 산은, 「세계속의 한국산업 1994」를 통해 가전분야의 고부가화, 컴퓨터분야의 WS, PC 및 주변기기분야 기술력 향상, 반도체분야의 장비기술 향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우리 전자산업은 총생산액 364억 달러로 세계 전자생산액의 5.2%를 점유해 세계 6위의 위치를 점했다고.
10. 31 : 상공자원부, '95년중 산업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특성화, 국산 신기술 제품 보증보험제도 도입, 기술등록 및 상설 기술거래시장 개설,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 등 35개 기술정책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.